

2013 '능동고택 음악회' 화려하게 열려



△10. 19 능동제사에서 능곡회 주관으로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원내 축하하는 영세시장. △능곡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동시가 주최하고 능곡회(陵谷會: 회장 권영훈)가 주관하는 2013 '능동고택 음악회'가 10월 19일 오후 6시 안동시 서후면 상곡리 능동제사 추원루 앞 잔디밭 광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권영세 안동시장을 비롯하여 권재주 안동중전회장, 권영훈 능곡회장, 권혁복 능우회장, 김명호 도의원, 권광택 안동시의원, 능우회 및 능곡회 회원,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음악회를 개최하기전 권재주 안동중전회장과 권영훈 능곡회장, 능우회 및 능곡회 회원 등 20여 명이 시조모소에 올라 가요제를 지냈다.

모'가 북을 신나게 두드리는 난타공연을 했다. 이날 프랜시스 아나운서 겸 MC를 맡고있는 심정옥 사회자가 내빈소개를 하면서 행사진행을 하였다. 제일 먼저 통기타가수 허만성씨가 '행복의 나라'와 자작곡 '친구' 등 4곡을 연달아 불렀으며 김지은(전통우리소리연구소 예술회원) 등 2명이 '아리랑'과 '밀양아리랑' 공연을, 임성국(국악협회 안동지부 부지부장)과 이수빈(안동교사국악회 단원)이 대금과 해금으로 '인연'을 함께 연주했다. 이어 안동윈드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지휘자 권영희는 색소폰으로 '창밖의 여자' 등 2곡을 연주했으며 또 즉석에서 권영국(전 능곡회장) 등 3명이 참여, 색소폰으로 '시계바늘' 등의 노래를 연주할때 관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함께 노래를 불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마지막 출연자인 초청가수 윤성씨가 '아버지'라는 노래를 부른 후에 앵콜송으로 '비밀아 멈추어 다오'를 신나게 불러 많은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주최측은 유명가수를 전연 초청하지 않고 대신 안동지방에서 활약하고 있는 음악인들을 초청, 보다 알찬 음악회를 가져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무려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주최측은 사전 준비한 소형담요와 따뜻한 물,커피 그리고 떡, 음료수, 과자를 관객들에게 일일이 나눠주었으며 행사가 끝나자 안동시장과 능곡회원들은 기념촬영 후 해산하였다. <보도부장 권영진>

<가을밤에 들려오는 능곡의 음악소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음악회는 식전행사로 50-60대 남녀 9명으로 구성된 '풍사

■ 고사성어 ④



刮目相對(刮목상대) :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는 뜻. 곧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전에 비하여 단 사람으로 볼 만큼 부쩍 늘 것을 일컫는 말.

삼국시대(三國時代) 초엽, 오왕(吳王) 손권(孫權:182-252)의 신하 장수에 여몽(呂蒙)이 있었다. 그는 무식한 사람이었으나 전공을 쌓아 장군이 되었다. 어느 날 여몽은 손권으로부터 공부하라는 충고를 받았다. 그래서 그는 전

지(戰地)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手不釋卷(수불석권)]' 학문에 정진했다. 그 후 중신(重臣) 가운데 가장 유식한 재상 노숙(魯肅)이 전지 시찰 길에 오랜 친구인 여몽을 만났다. 그런데 노숙은 대화를 나누다가 여몽이 너



경북 영주생 검교공파 34세
H.P.: 010-5483-7511
-약력-
·개인전 4회, 초대 그룹전 2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영남미술협회 회장
·유강 서화연구회 원장

무나 박식해진 데 그만 놀라고 말했다. "아니, 여보게. 언제 그렇게 공부했나? 자네는 이제 '오나라에 있을 때의 여몽이 아닐세[非復吳下阿蒙(비복오하이몽)]' 그러." 그러자 여몽은 이렇게 대꾸했다. "무릇 선비란 헤어진 지 시름이 지나서 다시 만났을 때 '눈을 비비고 대면할[刮目相對(刮목상대)]' 정도로 달라져야 하는 법이리네."



巧言令色(巧言令色) : 발라 맞추는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이란 뜻으로,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첨하는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표정을 이르는 말

공자 [孔子: 이름은 구(丘), (論語)×학이편(學而篇)에서 이렇게 B.C.551~479]는 아첨꾼에 대해, 논어

말라 맞추는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에는 '인(仁)'이 적다[巧言令色 鮮矣仁]

말재주가 교묘하고 표정을 보기 좋게 꾸미는 사람 중에 여진 사람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을 뒤집어서 또 공자는 <자로편(子路篇)>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질 빈빈한 연후야야 군자라 할 수 있다.[文質彬彬 然後君子] 문(文:형식)과 질(質:실질)이 잘 어울려 조화를 이루어야 군자라는 뜻이다.

텍스처와 은유 권의철 개인전

권의철의 개인전이 9월6일부터 9월 29일까지 영등포갤러리에서 열렸다. 그의 회화작품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history>라는 일련의 시리즈로 구성된다.

권의철의 개인전이 9월6일부터 9월 29일까지 영등포갤러리에서 열렸다. 그의 회화작품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history>라는 일련의 시리즈로 구성된다. 화면의 표면은 마치 흙을 빚어 구운 듯한 텍스처를 느낄 수 있고, 무채색톤의 난조, 연꽃 형태나 탁본을 뜻 듯한 이미지의 흔적은 시간이 쌓인 화석화된 이미지처럼 보인다.



고 있다. 권의철(69, 상주, 북야공파 36世) 작가는 홍익대학 동양학과를 졸업하고 국전에 작품을 출품해 특선·입선(9회)했으며 한국미술 중진 작가초대전, 국전 작가회전 등 작품을 다수 출품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비구상 심사위원장, 미술대전 대당전 한국화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사)한국미술협회 자문위원,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크게 활동하고 있다.

이것을 박명인 미술평론가(한국미학연

구소 대표)는 "문자의 형상이나 암각화의 물상들이 은유하고 있는 시간성은 바로 수천 년의 역사를 예측하기에 충분하고 오늘에 와서 그러한 역사적 이미지가 과거인과 현대인의 표상으로 비교될 때 인간의 원초적인 이상(理想)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작가는 인생사가 그렇듯 작품의 제작 과정 또한 무수한 시행착오와 시간을 거쳐 다시 시도하고 반복하기를 수차례, 그만의 조형언어로 내면의 메시지를 전하

<권오복 편집위원>

안동권씨족도(安東權氏族圖)

비단필사 15세기 중반

回 최순권 (국립민속박물관학예연구관)

<지난호에 이어> 그 여(사위)의 사례를 보면,우선 원본(11사례)에 권여운은 권성태權成泰의 사위, 권희봉과 권백중은 권여운의 사위, 권연權連은 권운경權允景의 사위, 권로權老는 권연의 사위, 권효남權孝男은 권보權甫의 사위, 권효룡權孝龍은 권검權檢의 사위, 권질은 권희봉의 사위, 권가후는 권이의 사위, 권중헌權重憲은 권적權鶴의 사위, 권산해는 권전의 사위이며, 추록 부분(11사례)에 권수형權守衡은 권철산權哲山의 사위이다.

이에 권성태-여 권여운-여 권백중-자 권전(첫째 부인 권소)-여 권산해 또는 권성태-여 권희봉-여 권질-자 권환(부인은 권당의 딸) 등이 5대에 걸쳐 동성혼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족도 원본에는 여러 동성혼 사례가 나오지만, 추록 부분에 동성혼 양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 유교적 이념에 따른 사회적 조치로 보여진다.

■가문간 중첩 결혼
안동권씨는 안동을 세거지로 하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안동의 명문가와 중첩적인 혼인양상도 보여준다. 특히 의성김씨, 진성이씨, 영천이씨, 예안김씨와의 혼인관계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이외에 아들(며느리)의 사례는 족도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안동권씨성화보" 및 "안동권씨족보"를 보면, 동성혼으로는 권전의 첫째 부인은 권효룡權孝龍의 딸, 권질의 아들 권환權환의 부인은 (권덕생 권을령) 권당權當의 딸, 권시權시의 아들 권담權搭의 부인은 권당의 손자인 권자검權自謙의 딸이다. 권가후의 아들 권징勳의 부인은 권씨이다.

먼저, 권전의 둘째 사위로 나오는 의성김씨 김영명金永命(1398-1463)은 창계공 김진의 고조이다. 그는 권전의 딸을 셋째 부인으로 맞이하였는데, 김영명의 첫째 딸은 권전의 조카인 권자검權自檢의 부인이다. <끝>

■ 우강 권이역 전 장관 에세이

기쁨을 만들자



인생을 살다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된다. 전연 뜻밖의 불행이 닥쳐오기도 하고 예기하지 않던 기쁨이 찾아오기도 한다. 건강했던 사람이 졸지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희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말은 수없이 들어왔고 또 경험해왔다.

다. 삼성은 하루에 세 차례라는 뜻이 아니라 세 가지 반성이라는 뜻을 말한다. 반성은 하루에 몇 번을 해도 좋다. 그런데 이상의 세 가지에 대하여 만족할 만하다는 답이 나온다면 그 이상 기쁜 일은 없겠지만 내가 말하는 기쁨은 그렇게 고상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말한다.

어쨌든 고달픈 인생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기쁨이나 행복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오래가지 못하고 잠시 스쳐가는 기쁨이나 행복일 망정 우리 인생에는 꼭 있게 마련이니 희망을 생각해. 나에게도 하루에 한 번씩 기쁜 일을 찾아보려는 습관이 있다.

어느 한 주일을 예로 들어보자. 2011년 6월 27일(월): 오전 11시 경기도민회장학재단 임원회가 서초구 센트럴 호텔에서 열렸다. 63명의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나는 이해재(李海載) 회장의 요청을 받아 나의 인생담의 한 가지를 이야기하였다.

공개적인 기쁨까지는 아니더라도 혼자서나마 기쁘다고 느껴지는 일인가끔 생긴다. 하루를 지내면서 이것저것을 생각해보면 자기 편에는 기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는 법이다. 물론 기쁜 일은 많을수록 좋지만 단 한 번이라도 기쁘다고 느껴지는 일이 있도록 하자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삶의 보람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 순간"을 중요시 하라"는 교훈이라고 했다.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하는 이야기이다. 과거에도 소개한 바가 있지만 결혼식 주례사에 관하여도 언급했다.

나는 소위 '삼성(三省)'에 대하여 상당히 관심이 많다. '삼성'은 논어에 나와 있는 증자(曾子)의 다음과 같은 말이다. '吾日三省吾身: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得不如乎?' 남의 부탁을 받았을 때 어물어물 넘기지 않고 전력을 다했느냐?

신랑·신부에게 묻는다. "세가지 '금'이 있는데 '금' 중에서 어떤 종류의 '금'이 값진 것이냐?" 대부분의 신랑·신부의 답변은 '순금, 황금', '백금'이다. "옳다. 그러나 진짜로 값진 것은 '지금이다.'"라고 나는 말한다. 그리고 "시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지금' 미고,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덧붙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끄덕이면서 미소 지었다. 나로서는 기쁜 일을 하나 경험한 것이다.

친구에 대하여 성실치 않은 태도를 취한 일은 없느냐? 스승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을 되풀이 복습해서 완전히 자기 것이 되도록 했느냐? 증자는 공자의 제자이며 공자보다 46세 연소했

7월 2일(토): 체코 프라하와 람스 디온(Dion)에서 연속해서 열었던 국제 학술회의에 출석차 22일 출국하였다가 7월 2일 오후 4시에 귀국하는 셋째딸 동희 내외를 맞이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갔다. 외손녀 미규와 함께 갔다. 다리가 심상치 않아 혼자서 출영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미규의 도움을 받아서 다행이었는데 어쨌든 귀국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 참으로 기쁘다. 사위 안희승(安和承, 인하대 화공과 교수)은 전공분야의 실력과 능란한 영어 실력이 인정되어 국제학회 참석이 빈번하다. 동희도 비슷하다.

7월 3일(일): 언제나와 같이 한 가족이 함께 오찬을 들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만 강남의 모 식당에서 든 이탈리아식 음식은 별미였다.

오찬 후 외증손자·녀들과 함께 성북동 집으로 돌아와 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나에게도 대단히 기쁘고 행복하다.

이상에서와 같이 지나가는 매일을 살펴보면 예의 없이 하루에 한두 번은 꼭 기쁜 일을 만날 수 있다. 기쁜 일은 일부러 찾아서라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데서 사는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가지게 된다.

稅務士 權九文事務所

- 양도, 상속, 증여세 상담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개인, 법인의 기장, 고문
- 기타 세무상담 일체환영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73-14 보보스텔 208호
TEL: 2066-9741~4 / H.P.: 011-307-2443 FAX: 2066-9745

세무법인 和仁

- ◎ 세무상담, 세무신고대리, 기장대리
-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및 신고대리
- ◎ 법인설립, 법인전환, 각종세무컨설팅

본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427번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동부지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천파로13길 3층 41-1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대표 / 세무사 권혁창

Mobile: 010-3680-5057
E-mail: fax21@yahoo.co.kr

20년전통의 농장직매

고송농원

♣ 도·소매 ♣ 경조화환 ♣ 조경공사
♣ 꽃바구니 ♣ 각종화환 ♣ 관엽

서울 山岳會 權赫九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183-2 고송농원
TEL: 02)5752-5555 FAX: 02)6008-0677
http://flowertown.kr
H. P: 010-2240-4242